

충청권 교수·연구진도 유성기업 정상화 한 목소리

충남도·아산시 제안에도 노사 이견 커... “골든타임 내 합의해야”

충청권 교수와 연구진 등이 9년째 이어지는 유성기업 노사 갈등에 우려를 표명, 정상화를 위한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도와 아산시가 유성기업 노사 양측에 조건 없는 집중교섭 참여를 촉구했으나, 의견차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재훈 선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68명의 충청권 교수·연구진들은 2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유성기업 노사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사측의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합’ 불이행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 갈등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성명서 발표 취지를 설명한 뒤 “이번에도 유성기업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기약 없는 장기노사분쟁으로 충청지역 노사관계 및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내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사회와 종교계의 노력에 이제 유성기업 노사가 진정성 있게 화답해야 한다”며 “노사는 대화의 창구에 조건 없이 참여,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승

적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종교계는 유성기업 노사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집중교섭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장기분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심리치유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남도와 아산시 및 3대 종단이 제안한 집중교섭(19일부터 23일)은 유성기업 노사 간 다른 주장으로 불발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집중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에 노사 간 이견이 커 교섭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12일 아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기업 노사는 3대 종단이 제안하는 집중교섭을 조건 없이 참여해 조속한 기간내에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과 유성기업 노사는 집중교섭이 진행되는 기간 상호간에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대화협을 통한 조속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제언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사측의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합’ 불이행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직장 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 갈등이 9년째 이어지며 집단 폭행사태 발생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총회 대전유치 아프리카지부도 지지서한 보내와

대전시 7개 대륙지부 중 3개 지부 확보

대전시는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월드(World) 총회’ 대전유치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아프리카지부 피에르 일롱 엠바시(Jean Pierre Elong Mbassi) 사무총장으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지부 지지서한으로 대전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UCLG World) 산하 7개 대륙지부 중 아시아 태평양지부, 유라시아지부, 아프리카지부의 3개 대륙지부로부터 공식적 지지서한을 받았다.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 사무국은 대전의 개최능력을 인정했고, 남미지부는 지지를 구두로 약속했으며, 유럽지부는 유럽지부 회원도시가 후보도시로 나오지 않을 경우 대전시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4일 아프리카 가봉에서 열린 집행회의에서는 이은철 국제관계대사가 참석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 총회 대전유치 의지

를 표명하며 지지를 요청했고, 피에르 일롱 엠바시 사무총장이 대전유치 지지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또 다른 채널을 통해 남미지부 회원도시인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가 대회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상황이라 내심 걱정했다”며 “이번 공식 지지서한 확보로 걱정을 한시를 덜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유치제안서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달 24일 유럽지부 유치활동에서 만났던 월드(World) 사무총장의 조언에 따라 대전시는 ▲ 세계지방정부연합 참여도 및 회원들과 관계 ▲ 행사개최에 필요한 확실한 재정능력 ▲ 중앙정부 관심도 및 지원 ▲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행사로 만들기 위한 능력 ▲ 회원도시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Shared Value)를 담은 주제 ▲ 국제회의의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로 제안서를 완성해가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대회유치와 개최에 힘을 실어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대전유치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서한도 확보했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국제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제고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연계하고 대전을 찾는 세계 도시정상들과 동반 가족을 위한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안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께서 대회유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회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며, 시민들께서도 대회유치를 지지하는 만큼 반드시 대전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 총회’를 유치할 경우 ‘93대전 엑스포 이후 대전에서 치러지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가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인 만큼 대전시민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관심과 응원의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식약처, 방사능 검출됐던 제품 대상... “현재까지 검출제품 모두 반송”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CNCITY에너지, 대전시티즌에 발전후원금 전달

대전시티즌은 21일 대전근현대사 전시관(충남도청) 응접실에서 CNCITY에너지에 발전후원금 2억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단주인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티즌 최용규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CNCITY에너지에서는 황인규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

CNCITY에너지 황인규 대표이사는 “지역을 대표하고, 대전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기업으로서 대전시티즌을 후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프로축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며 발전후원금 2억원을 전달하였다.

허태정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꾸준히 대전시티즌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환기자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해 23일부터 최근 5년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그 수거량을 2배로 늘려서 더욱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kg 시료를 채취해서 1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제조일자별로 1kg씩 2회 시료를 채취해 2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사강화가 되는 대상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과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및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한편 이 국장은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및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전남대학교
JEONNAM UNIVERSITY

교육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수취업률 1위
우수교육중심대학 전국 7위

혁신

의사 포함 보건의료 국가고시
전국수석 11회 배출
기업요구형 예약학과 운영

대학

교육부 공시 취업률 78.1%
3년 평균 80% (2018년 기준)

인간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교육혁신대학



건양대학교



윤여진 입학처장

상식에서 본상인 'Winner'를 수상했다. 이어 올해도 RedDox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인 'Winner' 수상,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공모전인 SPARK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2개에서 3년 연속 수상작품을 배출하는 국내 대학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 냈다.

건양대 의공학부 박민석,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손주희 학생은 습기가 많아 약품의 보관이 쉽지 않은 동남아국가를 위한 약병인 'Keep-Cap'을 개발했다. 이는 특정한 지역의 사정에 알맞은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는 적정기술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제품은 국내 각종 공모전 수상 및 우수 창업 사례로 손꼽히며 올해 베트남 국방 병원에 약 5천개 가량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혁신을 향한 건양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021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건양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교육혁신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혁신 대학"을 핵심비전으로 하는 <HUMAN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9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은 건양대가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양대 캠퍼스의 학문분야별 특성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체계를 한층 더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방산 전문인력교육,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창업지원 등 근로자, 학생, 기업을 위한 최적의 교육·연구환경을 제공할 국방산학융합원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이룬 성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건양대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성공사례야말로 건양대가 추구하는 혁신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3월 독일에서 열린 2017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적인 골드어워드를 국내 대학 최초로 수상한 건양대 융합디자인학과는 2018년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RedDox 디자인 어워드 시



대전 메디컬캠퍼스의 경우 의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이 집중돼 있고 또한 건양대병원도 같이 위치해 있다는 특성을 활용해 산업체·학교·연구소·병원의 융복합 클러스터인 의료기술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00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신축될 의료기술원은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이 경계 없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센터로 대전광역시 중구연 구본인인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바이오헬스케어 신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건양대 2020학년도 수시모집 소개] "통 큰 장학제도와 창의적인 인재 양성" 건양대는 2018년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우수교육중심대학 TOP7', 대학으로 대전과 충남 논산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메디컬캠퍼스는 대학병원과 연계해 의료보건 특성화로 운영하며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의료공과대학으로, 총 4개 단과

대학 15개 학과, 720명을 모집한다.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는 PRIME 창의융합대학, 재활복지교육대학, 글로벌경영대학, 군사경찰대학, 총 4개 단과 대학 27개 학부과, 840명을 모집한다.

정원 내 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은 일반학생 [교과], 일반학생 [최저], 지역인재 [교과], 지역인재 [최저], 군사학전형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건양사립인(사)전형, 창업인재전형이며, 실기위주전형은 일반학생 [실기], 글로벌인재 [특기자]전형이 있다.

정원 외 전형에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만 선발되며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있다.

'일반학생' 전형은 선발 대상 범위가 전국이며 '지역인재' 전형은 대전·충청·세종 지역 고교를 입학-졸업(또는 예정)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에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교과별 최고 1개 과목을 반영한다. (학년별 4개 / 국

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별 1개 과목 / 과목 총 12개 과목 반영) 단, 의학과 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과 과학교과 중, 학년·학기 구분 없이 최고 8개 과목까지 반영한다.

또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지원자의 경우는 전교과 반영(예체능 및 재량과목 제외)이며,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국사) 과목을 반영한다.

신입생 장학금으로는 성적우수장학금, 최초합격자장학금, 자매고교출신 장학금 등이 있으며 최초합격자 장학금은 수시전형 최초합격자에게 일정액을 수여하고 자매고교 출신 장학금은 자매결연 고등학교 출신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전원에게 별도 일정액 장학금이 주어진다.

기숙사인성관은 대전메디컬캠퍼스 3개,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5개 학사로, 실 규모는 1~4인실까지 다양하며 총 2,800여명 수용이 가능하다. 또 신입생은 기숙사인성관 입사를 신청하면 100% 입사가능하다.

이정복 기자



• 특 정 •

진로체험기관 담당자 워크숍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2일 오전 10시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2019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기관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

나눔냉장고 혁신캠페인 벨트 전수식



황인호 동구청장= 22일 오전 9시 용운동을 시작으로 8개동에 대한 나눔냉장고 혁신캠페인 벨트 전수식을 갖는다.

효문화뿌리축제 준비상황 보고회



박용갑 동구청장= 22일 오후 3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준비상황 보고회' 주재.

창립65주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장종태 서구청장= 22일 오후 3시에 자유충연맹 대전시지부에서 열리는 '국립민복가치실현 및 창립65주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한다.

대전미디어페스티벌



정용우 유성구청장= 22일 오후 3시 30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2019 대전미디어페스티벌에 참석.

월평동 불법 포장마차 자진철거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1996년 이후 약 23년 동안 인도를 무단 점용한 월평동 불법 포장마차 10여 개가 자진철거 돼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를 조성했다.

이번 자진 철거된 불법 포장마차는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어 주,야간 주차자의 고성방가와 더불어 교통안전 위협(해충 등 주민 생활 불편 초래)과 특히 어린이 정서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또한,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대집행 영장을 통지해 오는 22일 대집행 사실을 알렸으나, 의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당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대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구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의무자 개별 면담을 통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결과, 수십 년간 인도를 무단 점용한 고질적 불법 포장마차를 드디어 정비했다.

서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지속된 고질적 다수의 불법 포장마차의 경우는 대집행 할 수 밖에 없으나, 의무자의 설득을 통하여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모범적인 사례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해당 지역의 보도블럭 교체, 조경사업 등 환경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비위생적 환경을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하여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엑스포시민광장 안전시설 보강

대전시, 트랙 이용자 속도제한 노면표시·속도저감 포장 등

한발수목원은 엑스포시민광장의 안전시설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엑스포시민광장은 도시공원내 광장시설로서 남녀노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각종 행사, 공연 등 공원 관람객과 이용자 왕래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장 외곽 트랙을 자전거 전용 트랙처럼 무분별하게 속도를 높이는 등

과속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보행자 상호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한발수목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할 수 있는 안전시설 보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발수목원은 엑스포시민광장 스포츠평크 내 속도저감 포장 및 중앙분리선을 설치해 자

전거와 인라인 이용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일부 무차별 앞지르기 등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속 20km 제한속도를 10km 이하로 낮추고 속도제한 노면 표시 및 현수막, 표지판 등을 설치해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석훈 한발수목원장은 "안전시설 보강 외에 과속 자전거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엑스포시민광장을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발수목원(042-270-8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충남대학교병원 1등급 받아

충남대학교병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총 84기관 대상으로 이뤄졌다.

충남대학교병원은 평가지표인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이소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송민호 원장은 "충남대학교병원은 각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환자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행복나눔! 찾아가는 기부 릴레이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회 참여

유성구 노은2중(동장 전남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정순)가 주관하는 '행복나눔! 찾아가는 기부 릴레이'에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회가 21일 참여했다.

이번 행복나눔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금 30만원을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행복누리재단에 지정 기탁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목적에

맞게 도움이 필요한 관내 복지사 각지대 대상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정순 위원장은 "'행복나눔! 찾아가는 기부 릴레이' 운동은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면서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덕구 지역특성화 화재대피훈련 실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은 21일 도심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탄진권역 6곳에서 지역특성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 등 생활안전훈련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재난 발생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이날 덕암유치원에서는 오전 10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화재경보를 울리자마자 교사 등 인솔자의 통제 하에 어린이들이 일사분란하게 대피하며 훈련에 참가했다.

대피훈련 종료 후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활용을

안전 교육도 실시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였다.

신탄진권역 6개동에서는 이날 중점훈련장소를 각각 선정해 재난취약계층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재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조규성 대덕구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이번 훈련과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을 자주 실시해 시민들이 위기상황 속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대덕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중구 지역특성화 훈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생활안전교육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21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중촌주공2단지아파트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안전문화 확대를 위한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공동주택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사고로 확대를 막고 또한 거주자의 화

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리공단 중촌주공2단지(소장 차재호)와 동부소방서 삼삼119 안전센터(센터장 박병용)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화재 발생 3분 내 최초 신고 후, 자위소방대의 초동 화재조치, 인과 코를 막고 비상계단을 통한 주

민 대피, 부상자 응급조치와 이송, 소방차 화재 진압까지 실천과 같이 신속하고도 정확한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 후에는 소방서 관계자의 시범으로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과 경량 칸막이를 사용한 대피방법, 화재 대응요령 등 안전교육도 실시됐다.

박용갑 청장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주민참여형 민방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중구, 추석 연휴 전 야외활동시 썩뜨기무시 등 주의 당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추석 연휴 전 밤초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썩뜨기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96명 중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세탁해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중구보건소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입추가 지나고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등산이나 성묘, 밭초로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 안전한 야외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19회 대전국제음악제 성료

8일간 10회 공연의 뜨거운 여정 마무리



제19회 대전국제음악제가 8일간 10회 공연을 끝으로 8일간 10회 공연의 뜨거운 여정을 마무리했다.

올해의 국제음악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메인 공연과 5일부터 25일까지 도서관, 과학관, 카이스트 등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시티콘서트로 이루어져 안과 밖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축제로 이루어졌다.

연주단체와 장르별 구성의 심화와 보다 충실한 홍보 및 매끄러운 진행을 속제로 남겼으나 시티콘서트 7회에 약 1500여명 관람, 메인콘서트 10회에 약 5000여명 관람, 마스터클래스 18회에 약 100여명 참가, 우리나라를 포함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중국의 총 5개국에서 약 180여명의 연주자가 참여하는 등 국제음악제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했다.

송병배 기자



박정현 청장, 덴마크 에너지청 방문 에너지전환 정책 공유

정책추진 공공기관·재생에너지 현장 등 방문 우수사례 직접 체험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대표로 자격으로 북유럽 순방을 떠나선 가운데 현지 시각 19일 에너지 녹색전환을 위해 덴마크 정부에서 직접 설립한 비영리 공공-민간단체인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을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대표단은 스테이트 오브 그린에서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 덴마크의 녹색전환 정책에 대해 듣고 난 후, 현재 우리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사례 등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덴마크 에너지청을 방문, 향후 에너지계획 및 비전을 소개 받고 재생에너지의 지역수용성을 위한 제도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재생에너지 생산 현장도 방문해 에너지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미틸그린 해상풍력단지와 아

베도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등을 탐방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선진지 방문을 통해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에너지전환과 분권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대표단은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지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29일 귀국한다.

김태선 기자

하소동 일원 상습침수지역 주민불편 완전 해소

동구, 하수관로 부설 및 도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소동 131-3번지 일원에 하수관로 및 도로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장마나 폭우 시 저지대로 모인 빗물이 하수도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해 침수 현상이

발생하고 악취로 인한 상습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이었다.

이에 구는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62m를 부설하고 1289㎡ 길이의 도로를 말끔히 정비했으며, 빗물받이 49곳을 재정비하는 등 침수현상을 방지하고 주민

들이 평소 불편 사항을 단번에 조치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쾌적한 하수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 도로 침수에 방과 관련된 것들은 주민의 생활 기반시설임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공주시, 태양광·지열 등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국도비 39억 원과 시비 17억 원 등 총 56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시는 2020년 8개 마을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232개소와 지열 10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료와 난방비를 연간 약 3억 4천만 원 절감하고, 석유에너지 507TOE(석유환산톤) 감축 및 이산화탄소 1200톤 절감효과로 연간 24만 1천 그루의 소나무심기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11개 마을의 주택과 건물 312동에 태양광 429개소 및 지열 215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안면 소랭이마을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 소외지역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전환해 주민의 생활환경과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읍면 등의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과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설치해 주민들의 전기료 절감과 환경개선에 기여를 위한 지원 공모사업이다.

공주=정성범기자



꽃게 하면 태안 가을 꽃게잡이 시작

금어기 해제된 본격 꽃게잡이 돌입·지내해보다 30% 수확량 늘어 풍어조짐

태안군의 상징이자 태안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가 지난 21일 금어기 해제 이후 본격적으로 수확돼 전국 각지의 수확량을 유혹하고 있다.

태안군 백사장항에서는 금어기 해제 일인 21일 0시를 기해 10여 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 약 5~6톤의 꽃게를 싣고 위판장으로 돌아오며 본격적인 꽃게잡이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가을 첫 수확량에 비해 30% 가량 늘어 꽃게 풍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확 첫날인 21일 백사장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가을꽃게 가격 대비 50%가 내린 1kg당 6,000원~8,000원 선(중대 크기 기준)에 위판가가 형성됐으며, 앞으로 수확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안 꽃게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청록색의 윤기가 흐르고 특유의 반점이 오뎀조밀하게 붙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태안에서는 간장게장과 계곡지 등 지역색이 풍부한 꽃게 음식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 어민뿐 아니라 향·포구 주변 횡집과 펜션 등 공중·위생업소 운영 주민들도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분위기다.

태안군 관계자는 "꽃게는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를 의미하는 태안의 마스코트로서 태안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 가을에도 꽃게 대풍이 들어 어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행복해 지고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아산시-건설기계아산지회 간담회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사)건설기계계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아산지회(회장 서원태)와 건설기계분야 애로사항 간담회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건설기계계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아산지회 임원진, 시장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임원진들은 건설기계 분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 후 후원금 200만 원을 쾌척했다.

서원태 지회장은 "굴삭기, 덤프 트럭 등 건설기계가 주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도심지역의 불가피한 주차로 소음·환경공해가 발생해 인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건설기계 공중주거장 설치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오세현 시장은 "공영주거장의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협약의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건설 산업현장에서 관내 건설기계와 장비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후원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설명회' 열려

무협, 오는 27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려...전략물자관리원, KOTRA 공동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오는 27일 대전무역회관에서 30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안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2차 수출규제가 28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를 수렴해 예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및 KOTRA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통상전략 2020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일본 ICP 제도 활용방안 ▶계별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전략 2020'은 현재 무역업계가 직면한 통상환경 점검, 지역별·산업별 통상전략 제시 및 기업의 통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원이 강연에 나선다.

이어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규제조치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대응절차를 안내하고, KOTRA가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ICP) 기업제도 활용방안 및 수입대체선 발굴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속 상담회 세션에서는 업체별 1대1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무역협회는 지역별 일본 수



출규제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TradeSOS 무역예외 컨설팅센터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애로·건의 수집창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제27회 서산시농업경영인 가족화합 한마음대회 성료



20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7회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가족화합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회장 홍성규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900여 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

다.

이날 오전에는 식전행사인 스피닝과 밸리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농업경영인 중앙회장을 비롯한 서산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의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28명에 대한 표창식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읍·면·동 대항 제기차기, 무후, 이어달리기 등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성규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런 때일수록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우리나라 농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천연기념물 '쌍향수' 고품위 아트메달 출시

조폐공사, 은 30개·동 150개 한정 제작... 27일부터 선착순 판매

한국조폐공사가 21일 프리미엄급 고품위 아트 메달인 '쌍향수'를 선보였다.

'쌍향수(雙香樹)'는 전남 순천시 송광사의 부속암자인 천자암에 있는 곱하나 무로, 나란히 선 두 그루의 줄기가 실타레처럼 꼬인 모습을 하고 있다. 고려 중기의 고승인 보조국사와 그의 제자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두 그루의 향나무가 됐으며, 나무에 손을 대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문화적·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1962년 12월 천연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인 '쌍향수 메달'은 쌍향수의 진귀한 모습을 고심도(高深度)의 기술로 재현했다. 은메달(중량 500g, 순도 99.9%, 직경 80mm)과 동메달(중량 390g, 직경 80mm) 두 종류로 은메달 30개, 동메달 150개 한정 제작된다. 메달 측면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은메달 99만 9000원, 동메달 15만 5000원이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조폐공



사 온라인 쇼핑몰(www.koreamint.com)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아트 메달은 일반 메달보다 예술성과 인체 감을 높인 반면 제작량(판매량)은 최소화해 수집가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인기가 높다. 조폐공사는 특수압인기술을 적용, 2017년 이후 '잠재·매사냥', '흑우·흑돼지', '장수하늘소', '수달' 등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을 소재로 한 메달을 선보였는데 모두 판매 당일 매진된 바 있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농업·농촌 혁신위원회' 힘찬 출발

혁신적인 공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첫발을 내딛다



공주시시장 김정섭은 지난 20일 혁신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담당할 농업·농촌 혁신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

농업·농촌 혁신위원회 설치에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는 각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할 농업·농촌 혁신위원회 위원 35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정일섭 위원, 부위원장에는 장은숙 위원이 선출됐고, 3개 분과 위원장 및 분과 부위원장들에 대한 구성도 완료했다.

이번에 출범한 농업·농촌 혁신위원회는 ▲농업정책의 추진·개발·발전계획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농촌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농업인 역량개발 ▲농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시 농업·농촌 정책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농업인들과 함께 시의 중요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계획으로, ▲농업분과 ▲농촌사회분과 ▲농산물 유통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충남대, 한국-베트남 '미래 혁신 기술의 세계로' 주제

과학 및 공학기술 심포지엄 개최

충남대학교가 한국과 베트남의 과학 및 공학기술 발전과 양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충남대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8월 22일(목)~23일(금), 충남대 대학본부 등에서 '2019 한국-베트남 과학 및 공학기술 심포지엄 (2019 KOREA-VIETNAM Science & Engineering Symposium)'을 개최한다.

'미래 혁신 기술의 세계로 (Towards the world of future innovation technology)' 부제가 붙은 이번 심포지엄은 충남대와 베트남 대학 간의 학술 및 연구교류 증대와 상호 이해, 신뢰 구축을 위해 개최된다.

8월 22일은 오전 9시부터 행사 개막식과 함께 심포지엄, 분과별

논의가 진행되며, 이어 23일에는 분과회의를 통해 충남대와 베트남 대학 간의 국제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충남대 오덕성 총장을 비롯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교수 및 연구자들과 베트남 국립과 학대학(VNU-Hanoi), 호치민시 베트남국립과 학대학(VNU-HCMC), 베트남하노이공과대학(HUST), 페니카대학(Phenikaa) 등 8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로 높은 교육열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 및 공학기술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정복기자

대전대학교, 전국 최다 합격이라는 쾌거 영광

여성ROTC 20명 전국 최다 합격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여학생들이 2019년도 ROTC 60기, 61기 선발 시험에서 전국 최다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1일 대전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발표한 '2019년 학군장교후보생 선발'에서 20명의 여학생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전대는, ROTC 여학생이 최초 선발됐던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최 상위를 유지하는

등, 명실상부 최고의 국가안보 교육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군사학과 학과장 엄정호 교수는 "이 모든 결과는 지난 6개월간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학의 전폭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초, 최고의 군사학과답게 국방 인보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우수직원 해외워크숍' 국내관광으로 전환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업무협약 금융기관(13개)을 대상으로 매년 프로모션 차원에서 은행이 추천한 우수 직원에게 해외 워크숍 기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금년에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관광상품권(1억3360만원, 167명/1인 80만원씩)을 대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영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 규제조치 등을 감안해 내수 살리기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와 은행권이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개최한 리더스포럼에서 시민경제 살리기(일명 '민경이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공제사업 분야에서도 이미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인하(9만6160명, 약27억 원) 및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한도 확대(176명, 12억원) 등 300여개 업체, 9만829명에게 약 40억 원의 지원을 한바 있다.

송병배기자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139일만에 200만명 다녀가

관광 연계해 334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큰 기여

지난 4월 6일 국내에서 가장 큰 예당저수지에 건설해 개통한 국내 최장 402m의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이 139일 만에 200만명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쓴 가운데, 예산군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체류형 명품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 200만명 돌파는 개통 51일만에 1만명, 26일만에 50만명, 51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새롭게 쓰인 또 하나의 기록이다.

그동안 예당호는 관광지임에도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보다 역동적인 관광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탄생한 것이 바로 예당호 출렁다리이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약 2년여에 걸쳐 건설됐으며 시험안전테스트를 거친 후 주변 편의시설 정비를 마친 지난 4월 6일 개통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타 지역 출렁다리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장 현수교로 부잔교가 함께 있으며, 문화광장의 벽수와 폭포수, 야간경관, 황새알과 사과 조형물, 주변 조각공원 등 아가자간 조형물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예당저수지 주변 풍광과



적근성이 좋아 주말 나들이 코스로 적합하고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연령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보행시설인 점이 주요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분석이다.

200만명 방문 기록은 지난 한해 예당관광지 전체 관광객인 20만명을 10배 웃도는 수치이며, 이와 함께 관내 주요 관광지 17개소의 전체 관광객이 240만명에 근접해 예당호 출렁다리가 관광객 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는 출렁다리를 비롯한 관내 주요관광지 인근 음식점 등의 매출 증가로도 이어져 평소보다 3~4배 매출이 상승했으며, 편의점, 푸드트럭, 지역특산물 등 관광 연계 분야에서 334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렁다리 인근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27개 농가에서 사과즙, 한과, 산나물, 잡곡 등을 판매해 5억7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군 지역경제에도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당호와 출렁다리를 관광객이 잠시 머물다 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다채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노력에 나서 한 단계 도약하는 체류형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예당호 주변 자연을 연계하는 느린호수길을 조성하고 숙박, 레저, 휴양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을 조성 중이며, 예당호 물놀이 주변에 2만5000㎡ 규모의 생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예당호 관광개발계획의 연계로 지역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면 334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렁다리 인근의 농특산물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떡볶이, 어육가공품인 제조가공업소와 제사음식, 전, 튀김 등 일반음식판매점, 인삼,홍삼 등 추석 선물용 제품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담당(☎ 044-300-3663)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분야 판매 불법 행위는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44-300-5736)에 신고할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김태성기자

세종시,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

내달 6일까지 수입산 국산둔갑 판매·유통기한 경과제품 근절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농수산물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가공품 국산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

시를 하는 행위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마트, 농협 판매장 등이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분야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유해 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떡볶이, 어육가공품인 제조가공업소와 제사음식, 전, 튀김 등 일반음식판매점, 인삼,홍삼 등 추석 선물용 제품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담당(☎ 044-300-3663)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분야 판매 불법 행위는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44-300-5736)에 신고할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김태성기자

대전교육청,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개선 학교 현장방문 협의회

대전교육청·대전시·5개 구청,대전도마초 방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1일 대전도마초 교장실

에서 '18~19년 학교부지 활용 통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기업 공모

한국수자원공사,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대 지원 위해 진행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희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하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기업 공모를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분야는 3개로, 성과공유제, 민간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다.

또한, 성과공유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의 수익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모분야중 '민간공동투자기술

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통학로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도마초 현장을 둘러본 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추진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통한 통학로 개선(교육청정책협의회 안건)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설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의를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자체와 학교간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을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김정환기자

당진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실시

나아가 스토리가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출렁다리 관광상품 공모전 ▲브랜딩이벤트(용우물 소원구슬 스토리텔링) ▲이색이벤트(할로윈데이, 키즈런, 나이트런) ▲예당호 불꽃축제 ▲어린이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공공디자인 거대사업 ▲소확행 테마포토존 ▲체류형 작은공간 ▲지역상생 군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예당호 권 관광 발전 포럼 개최 ▲테마가 있는 관광안내시설 조성 ▲예당호 주변 관광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예당호와 출렁다리를 연계한 예산 관광코스 내에 4곳의 스탬프 존을 설치해 스탬프투어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새로운 테마여행 기회에도 힘쓰고 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가을철 농촌여행코스 5선에 선정됐으며,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6시 내고향, 생생정보통, 테마가행길 등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또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티맵(T-map)'의 여름휴가지 검색 상위권에 예당호 출렁다리가 이름을 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관광명소로서 위상을 올리고 있다.

예산=김성규기자

당진시가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진시는 지난 19일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이주단지 외곽 구래 마을 일원에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당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당진시는 송악 이주단지 외에도 당진시장과 합덕시장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부명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 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 교육

농협대전지역본부, 농·축협 신용상무 및 지점장 등 참석

농협대전지역본부는 21일 오후 본부 10층회의실에서 농·축협 신용상무 및 지점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호금융 부문의 상반기 주요성과를 분석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과 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 역점사업추진 전략도 공유했다.

전용석 본부장은 "국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협이 제시한 목표인 4대 신경영이론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 공동체 구성원에게 사랑받는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세계고추·산야초 품종전시관 오픈

청양군, 2019청양고추구기자축제 주제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양읍 백세전강공원에서 개최되는 2019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주제관인 '세계고추·산야초 품종전시관'을 운영한다.

청양의 정취를 가득 담은 초가집을 배경으로 청양고추와 세계고추로 만든 담자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시행사는 또 3년

생 하비네로 고추, 2년생 청양고추 등을 선보이며, 1년생인 줄로만 알았던 고추 상식에 신선한 충격을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접목고추, 화초고추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 50여개 나라의 이색적이고 희귀한 고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방문객들의 안목을 넓히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양군의 설명이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경찰청 '어르신대상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가져



공주소방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업무 협약



아산소방서, 신입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대전충남지방청, 창설 제49주년 기념식 개최



대전 대덕폭, 공동체 치안 활성화 위해 생활안전연합회 구성

2020년 이달의 현충인물 후보자 추천

국립대전현충원, 내달 10일까지 추천 받아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2020년 '이달의 현충인물' 선정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관계기관 및 국민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송병배기자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 크게 늘어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도한 비용 요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탈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아산시보건소, 일본 뇌염 주의 당부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질병관리본부의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라 일본뇌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금강환경청, 대청호 녹조발생 사전 대응 총력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철)은 대청호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의 최근(8.12 채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회남수역 744, 추동수역 28, 문의수역 73cells/ml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미만이다.

류 세포수가 최대 47,190cells/ml까지 확인(9월3일)되어 '경계' 단계까지 상향했다.

가 처리 등 정수처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주인과 함께하는 경영혁신 보고대회



대전도시공사가 소통과 참여하는 민선 7기 핵심가치 경영하는 동시에 책상위에서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 '주인과 함께하는 경영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태성기자

보령소방서, 소방안전 표어·포스터 사진 공모전 홍보



소방안전 대한국민과의 공감대 형성하고
안전문화 확산 위해 홍보 나서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홍보에 나섰다.

보령=김정미기자

당진소방서, 한국 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개최

119소년단 운영과 활동방안 논의 위한 협의회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지난 20일 오후 5시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 119소년단 지도교사와 함께 119소년단 운영과 활동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향후 119소년단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소방교육 운영에 직접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지역자활센터 소방안전교육 실시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20일 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지활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생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 기타 재난사고 시 행동요령 등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태안=김정환기자

행복도시 박물관단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요

박물관단지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 5개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에 조성 중인 박물관단지 사업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행복도시 박물관단지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아이디어 제안내용이 우수한 5개 제안금상 1, 은상 1, 장려상 3을 21일(수)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세종=김태성기자

교육부, 내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만반의 준비에 돌입

2025년 전체 확대... 산업현장 중심 탄력적 교육과정 고려해 우선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도입한다. 2022년 특성화고 및 일반고 연차 도입을 거쳐 2025년까지 모든 고등학교 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에 51개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경직

적인 학과 운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신산업 수요 반영 및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직업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점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2022년 특성화고 및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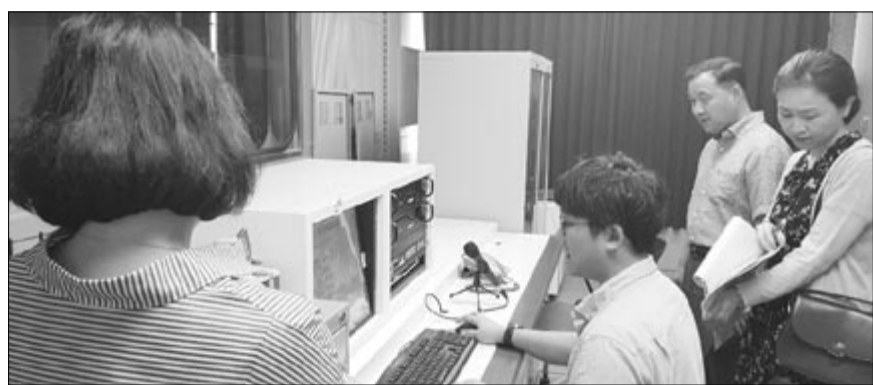
우선, 학점제 도입 위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해 유연한 교육과정 적용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실현의 기틀을 도입한다.

1학년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해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학습경험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는 전공 학과(과정)와 타학과 과목·과정을 융합 이수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기계과 '기계 조작 과정' 수강생이 소프트웨어(SW) 과목을 수강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계 조작원'으로 산업계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학과 내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부 직무경로를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학과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정보보안 과정'으로 세분화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오는 11월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응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월 12일 세종시 고등학교 수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설명했고, 8월 20일부터 이틀간 관내 모든 수능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1차 방송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무사고 수능을 이어가기 위해 수능 전날 감독관 예비소집교육 외에 10월말에도 총 2차례 감독관 연수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세종시 수능 응시규모는 도시성장으로 학생인구가 증가하는 수치를 반영해 지난해 2,805명 대비 약 25% 700명(가) 증가한 3천 5백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사실은 관내 10개 고등학교 수능 시험장 학교에 지난해 141실에서 올해 175실로 24%(34실) 늘릴 예정이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2개 학교를 예비 시험장으로 준비한다.

한편,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관내 14개 고등학교와 세종시교육청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졸업) 고등학교에서, 세종시 거주 타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세종시교육청 1층 진학지원센터에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응시 내용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다.

이정복기자

세종=김태선기자



공주대, 공주교육지원청과 공동 '가야원정대' 역사문화캠프를 펼친다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지원봉사센터(센터장 류주현, 지리교육과)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과 공동주관으로 관내 초등학생 45명과 대학생 멘토링 17명 등 총 62명이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김해 일원에서 가야원정대 역사문화캠프를 실시한다.

서산 음암초, 통일 그림 타일 벽화 제작

전교생 267명 모두 참여하여 통일의 염원 담아 제작



서산 음암초(교장 조유선)는 전교생 267명이 모두 참여하여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 그림 타일 벽화를 제작했다.

음암초는 통일체력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1학기에 '통일 타일벽화 만들기' 체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통일로! 세계로! 라는 주제로 267명의 전교생들이 통일된 우리나라의 모습

을 상상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색깔으로 통일의 희망과 염원을 그림에 담았다.

조유선 교장은 벽화를 둘러보며 "학생들이 통일에 더 관심을 갖고 통일의지를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이곳을 오고 가며 통일 의지를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보령창미유치원, 다문화 캠프 특성화 활동

원아들 대상... 방과후 과정 다문화 캠프 특성화 활동



보령창미유치원장 김혜정은 8월 원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다문화 캠프 특성화 활동을 실시했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알아보고 세계 속에서 당당한 어린이로 자라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문화 캠프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4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운영 대상은 만3세 영유아, 만4세 장의 1, 2반, 만 5세 미라네 1, 2반으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들은 다문화 선생님과 다양한 언어로 인사하고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며 함께 동화 듣기, 노래 부르기, 율동, 게임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번 캠프 기간에는 다양한 색의 물감을 손바닥에 묻혀 찍어보는 '색깔놀이'와 공을 이용한 신체 활동, 지점도를 통한 '축삭놀이' 등을 계획하여 운영을 하였다.

김혜정 원장은 "다문화 캠프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모든 유아들이 다문화 활동을 즐겁게 참여하고 흥미 있는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몰입되어 놀이를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동시에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도 기대해본다."며 밝혔다.

보령=김정미기자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교육

대전교육청, 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한 행복한 일터 가꾸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1일 대전교육청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1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125명(▲교부·행정보조 5명 ▲사서보조 18명 ▲배식보조 21명 ▲급·간식보조 4명 ▲학급도우미 2명 ▲청소보조 73명 ▲카페 지원 2명)으로 각급학교 및 기관에 배치되어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이다.

이번 교육내용은 장애 인식개선, 기초 소양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및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한

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시간은 우송대학교 이채식 교수가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인권 및 장애 존중하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하고, 둘째시간은 국제보건교육실천협회 노은아 대표가 '기초 소양교육'의 주제로 마음 들여다보기, 직장생활에 필요한 마음가짐, 상황에 맞는 에티켓, 직장생활의 매너코칭 등을 강의했다.

대전교육청 임기표 행정과장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 4.0%로 4년 연속 정부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일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2019 행복드림체험학교 시즌2 종강식

천안교육지원청, 마을과 함께한 행복한 여름방학 만들기 성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은 21일 나사렛대학교 정남수기념관에서 2019 마을과 함께하는 행복드림체험학교 시즌2 종강식을 가졌다.

행복드림체험학교 시즌2는 여름방학을 맞아 천안신초초 학생 4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 학생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마을과 지역의 교육자원과 협력방안 모색을 통한 행복교육지구 시범사례 도출에 특화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험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은 나사렛대

에서 교육연구, 집단상담, 매듭 및 수공예, 합창-무지컬, 제과제빵, 로봇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 인성, 신체활동, 진로탐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안전체험관, 독립기념관, 청소년수련관 등 '내 고장 천안 체험학습'으로 누구보다 알찬 방학을 보냈다.

이날 종강식에는 학생들이 만든 매듭 공예 작품이 전시됐고, 합창 및 맨스공연도 선보이는 등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안=이정복기자

홍성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독독독! 책이 노크하세요' 다양한 프로그램 19종 마련



홍성교육지원청 홍성도서관(관장 안영숙)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9종의 행사를 마련한다.

그림책 원화 전시, 팝업북 전시, 인문학 도서 전시, 오디오북 시연회, 독서퀴즈왕, #홍도북스, 행운의 영수증, 우수이용자 & 책 읽는 가족 선정, 이용자 만족도 및 연속

간행물 조사, 한 달 내내 두배로 데이, 연체 지우개, 이별작가와 함께하는 샌드아트 공연 및 체험, 오션화 작가 초청 강연회, 나만의 책 만들기&진로특강, 과월호 잡지&도서 부록 나눔, '책 읽는 모습 사진' 공모전,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이벤트 (@hongseonglibrary)가 펼쳐진다.

특히, 독서의 달 행사 시작인 9월 1일 일요일에 열리는 <홍도X해리포터, 비밀의 방>은 오전 오후 행사로 진행되는데 오전에는 해리포터 관련 팝업북, 국내·외 도서 특별 전시와 해리포터 주인공 되어보기 체험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영화 상영회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www.hsl.or.kr)나 전화(041-632-2860, 631-75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구지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연계 및 지역교육 발전 방안 협의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은 21일 교육청실에서 중구부구청장을 비롯한 글꽃초등학교장, 용운중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지역 교육행정협의회는 동부교육지원청과 중구청 간 교육정책의 연계 및 협력 강화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국·과장, 학교장 등 총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자리에서 위원들은 동부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 및 학교예술포육을 활

성화하기 위한 시회 지원 연계 방안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유해업소 합동점검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중구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전병두 교육장은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며, "향후 중구청뿐 아니라 동부 지역 구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초단위 차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청양교육지원청, 충남교육장협의회 개최

충남도내 14개 시·군 교육장과 내빈으로 청양군수 참석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기)은 지난 19일 청양알프스마을에서 충남도내 14개 시·군 교육장과 내빈으로 청양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업혁신 및 학교교육력 제고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운기 교육장은 "교육현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논의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보다 나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2020 1인 1악기 갖기 운동' 간담회 개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오는 23일 시청 시민홀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1악기 갖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술인 및 생활문화동아리, 강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1인 1악기 갖기 운동'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 동 정 •••

한미음 수련대회



황선봉 예산군 수= 22일 오전 11시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리는 바르 개살기운동에 신군협의회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1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리는 한 국생활개선에 신군연합회 회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농촌마을 빈집·폐교에 문화예술 공간 탈바꿈

“인구절벽 시대,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 홍성군의 농촌마을 곳곳의 빈 집, 폐교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광천 농협 소유 폐교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돼 ‘잇수창고’로 운영될 계획이다. 갤러리, 작은 콘서트, 공연, 지역음식만찬회(소셜 다이닝), 영화상영회, 작은결혼식 개최 시 활용해 지역민의 문화·예술·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실내 자연 놀이터도 조성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육아, 스터디, 아동·부 모들의 북가게 겸 스터디룸으로 운영 할 계획이며, 지역의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료 야간돌봄 놀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홍성을 찾는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홍성 청년들의 지역적근형 창업 공간으로 쉼어하우스도 운영할 계획에 있다.

광천읍 대평초등학교에서는 총동문회 주관으로 폐교된 모교를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코스모스 축 제와 작품전시회가 열리며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이다.

또한 장곡초등학교 반계 분교의 경우는 충남도교육청과 홍성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역사박물관’으로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에는 충남도내 폐교에서 가져 온 각종 물건들이 보관될 전망이다. 폐 교의 간판이나 사진 및 학교에서 쓰였던 각종 집기들을 비롯해 학생들의 학 적부와 같은 기록물 등을 한데 모아 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이응노 기념관으로 익히 알려진 홍천마을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해 마을 창고는 도서관이 됐고 빈 집은 공방 등 예술창 작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버려진 한옥과 축사를 개조해 만든 이응노 생가 기념관 창작 스튜디오도 문화재생의 한 예이다. 창작 스튜디오에서는 3명의 작가가 입주해 창작 활동을 벌이고 홍성군 일원에서 지역협력 형 공방미술 프로젝트, 교류탐방, 결과 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에 문화예술을 입혀 새로운 활력을 더해 가고 있다.

김정환 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응 ... 6개 대책반 가동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 등 6개 대책반 관련 회의 열고 대응책 마련

충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총괄반, 산업대책반, 기업지원대책반 등 6개 대책반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

남의 대일본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액 중 7.94%인 30억 6900만 달러를 차지했다.이 중 규제 대상 품목은 527개, 29억 7600만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비중은 △철강제품 30.77% △석유화학제품 21/65% △정밀 화학 10.77% △정밀기계 10.77% 순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장기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확장적 투자 기회로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며 “대책부품

국산화와 관련,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하되 위험물질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일본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정부의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와 연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희망 명단을 확보, 충남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예산 사과 가공품 중국 시장 진출

충남 기업인중국방문단 참여 아이파머스·중국 업체와 수출계약

충남 예산 사과 가공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도는 예산 아이파머스가 21일 중국 선양에서 청다오형지허무역유한공사와 무역협력협정 및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파머스는 예산군 응봉면에 위치한 농협회사법인으로, 예산에서 재배한 사과를 가공해 생즙과 건강식품, 스낵 등을 생산 중이다.

아이파머스는 양승조 지사의 중국 ‘동북3성’ 방문에 맞춰 도가 꾸린 기업인중국방문단에 참여, 이번 성과를 올렸다.

무역협력협정 및 수출 계약에 따르면, 아이파머스는 앞으로 사과생즙 등 4개 제품을 청다오형지허무역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에 수출한다.

두 회사는 또 상호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기업인중국방문단은 충남 중소기업연합회와 충남여성경제인협회 소속 29개 기업 대표 등이 참여 중이다.

이 중 아이파머스와 한스텍, 우

양, 금강정공, 우진첨구, 화성제관, 한전컨버전스, 대백제명주, 한국자동차기계 등 9개 기업은 라오닝성에서 현지 38개 기업과 무역상담회를 갖고 중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이번 상담회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2일 하얼빈으로 이동, 하이퉁장성 기업들과 무역상담회를 갖고 중국 판로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홍성군 봉서마을·신촌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신림청 주관으로 시행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홍성군 금미면 봉서리 봉서마을(이장 박근식)과 서부면 판교리 신촌마을(이장 맹정호)이 ‘녹색마을’ 현판을 달게 됐다.

지난 20일과 21일 봉서마을과 신촌마을에서는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김현수 홍성군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이 열렸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농·임업 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14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마을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녹색마을 캠페인을 시행하며 ‘우리 마을 우리 산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공감대 형성과 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한 성취감으로 마을 주민들을 단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석환 홍성군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마을 이장과 주민여러분이 협력하여 단 한건의 소각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실”이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 없는 청정홍성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척척세종,추석 귀성길 안전 책임진다

파손도로·표지판 등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



세종시(시장 이춘희)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추석 명절 기간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관내 도로와 교통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역 내 훼손된 ▲도로(포트홀) ▲차선 규제물 ▲배수로 뚜껑 ▲잡목에 가려진 각종 표지판 및 반사경의 가지치기 등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가 가능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이다.

시는 마을안길처럼 관리가 어려운 2차선 이내 도로를 우선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귀성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희상 민원대장은 “이번 추석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현장점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정 업무협약체결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힘써



예산군은 지난 20일 예산군청에서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평생학습 전달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정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3학기 교육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20개 도 산하 공공기관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각각 채용 절차가 달랐으나 이번 정관 개정 추진으로 채용시절 정교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공공기관별 매년도 인력 채용 계획 수립 ▲필기시험 의무화 ▲면접위원 23 이상 외부위원 선정 등이다.

또 도 주관 인정성검사를 의무 시행해 직원 채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 중에도 이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를 개선해 투명·공정하게 지역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역량강화·마을자원 발굴 프로젝트·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순면·대흥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배치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평생학습 센터로 해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학습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구 기자

9월 정책아카데미 강연 진행

27일부터, 일출신집2 유현준 건축가 명사특강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건축 및 동아시아 정세 등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로 9월 투명·공정하게 지역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아카데미는 시민추천 강사 유현준 건축가의 명사특강을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경제회복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경제, 자살예방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강연을 진행한다.

우선 오는 27일에는 명사특강으로 ‘tvN 일출신집2’ 출연자로 유명한 유현준 건축가가 ‘어디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첫 강연을 펼친다.

9월에는 3일 정태민 김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경제’, 10일에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 특강

으로 권해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알아보기’를 강연한다.

이어 17일에는 박상길 알파멘디디자인 리서치 부대표의 ‘시민주어 정책-국민디자인단 이해하기’, 24일 황동원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영전략팀장의 ‘규제개혁 쉽게 다가가기’ 강연이 펼쳐진다.

수강신청은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hle.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 044-865-9670로 연락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현안이슈 및 주요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a call center with phone number (042)538-3030 and website www.daejeontoday.com.

동정

기증식



오세현 아산시장은 22일 오후 3시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청년아시트 도서 기증식'에 참석.

리더십역량강화연수



김영애 아산시의장은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 열리는 충남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리더십역량강화연수에 참석.

한마음대회



김기재 당진시장은 22일 오전 10시 당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회 농가주부모임 당진시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

소비촉진 캠페인



가세로 태안군수는 22일 오전 7시 50분에 만리포교등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생활개선 태안군연합회 우리쌀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석.

마을봉사의 날 행사



김도곤 청양군수는 22일 오전 11시 목면 선홍리에서 진행되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참석.

청양군 건강한 모유수유아 4명 선발

청양군(군수 김도곤)은 지난 20일 2019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한 결과 비봉면 민서울 아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후 4~6개월 된 아기들과 가족 40여 명이 참가해 각각의 건강함을 뽐냈다.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혜전대학교 교수 등이 아기들의 신체발달, 행동발달, 건강상태, 모아 애착도를 종합한 결과 비봉면 민서울 아기가 최우수상, 청양읍 김도운 아기 우수상, 대치면 한평안 아기 장려상, 정산면 문송희 아기가 특등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3명은 9월 5일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충청남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청양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심훈 문학제 오는 30일 팡파르

당진시, '심훈과 그의 시대' 주제·추모제 등 행사 열려



2019 심훈 문학제가 오는 30일 심훈 선생 문학의 산실이자 소설 '상록수'의 집필지인 당진시 송악읍 필경사에서 개최된다. 논픽션 학회가 주관하는 심훈 문학제는 당진화력본부가 후원하는 당진지역 최대 문학행사다. 올해 심훈 문학제는 '심훈과 그의 시대'를 주제로 ▲83주기 심훈가 추모제 ▲심훈 문학대상 켈런지 ▲심훈 문학학회 등이 이어진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추모제에서는 심훈 선생과 3.1운동을 재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특별 행사가 준비 중으로, 심훈 선생의 생전 인연이었던 독립지사

의 후손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심훈 문학대상은 기존의 심사방식을 대폭 변경해 '심훈 문학대상 켈런지'라는 이름으로 예산 심사를 통과한 5명의 소설가들이 최근 작품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선별된 문학 전문가들의 투표를 통해 경합을 벌인다.

이밖에, 올해 행사에서는 2회를 맞이한 심훈 문학상과 제1회 심훈학술상의 시상식도 마련돼 심훈 문학의 산실인 필경사에서 그 정신을 계승할 문인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심훈 문학 학회에서는 심훈 선생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심훈의 문학정신과 소설 상록수에 관한 다양한 해석 등을 준비해 심훈 선생의 학술적 접근과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

태안군-충남교육청-태안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2024년까지 20억 원 들여 공교육혁신·마을교육 활성화



태안군이 충청남도교육청, 태안 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한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자연의 품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태안'이란 비전으로 관내 유·초·중·고 학교 및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체험교육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 20억 원(2020년 약 6억 원)을 들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실시된다. 공교육혁신·마을교육 활성화·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3개 분야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지역 교육과정 개발 ▲교사·학부모 활동지원 ▲지역 특성화 과제 등 공교육 혁신 분야 지원 ▲주민 마을학교·지역연계학교 운영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등 마을교육 활성화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 마을의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확대,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과 함께 충남교육청·태안교육지원청·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아산시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계자 회의 열려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8월 20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업무담당자와 위원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사회 걷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읍·면·동별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2018년 소지역별(읍면동) 건강지표 분석 ▲2019년 상반기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현황 ▲2019년 주민자치 연계사업 ▲2019년 하반기 건강증진사업 소개 ▲토론 및 주민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아산시보건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시민건강만족도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은태 소장은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차광재배로 '생강' 상품성 향상

태안군, 상품성 저하·생산량 감소 막기 위해 방법 개선

태안군이 흑서기로 인한 생강 상품성 저하 및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재배방법 개선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차광재배로 온도를 4℃(체감온도 7℃) 낮춰 생강 생산성을 향상하고, 세출 재배를 통해 토양병해충을 줄여 상품성을 향상하는 등 생강 재배방법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군은 생강연구회와 함께 생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기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해 생강 상품성 향상 및 생산량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가의 현안사항 등을 수렴해 생강의 창의적재배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미이후 발생하는 토양병인 생강뿌리썩음병 확산이 예상되므로 체계적 예방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생강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병해충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에서는 전국 생강 재배면적의 10%인 210ha에서 770여 가구가 생강을 재배하고 있으며, 군 농업기술센터는 충남농업기술원과 함께 '양념채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생강작목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태안 생강은 비옥한 황토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진하고 속이 짙 차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태안=김정현기자



아산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복지실무자 교육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난 19, 20일 2일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실무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1년 만에 획일적인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 2단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청양군 건강한 모유수유아 4명 선발

청양군(군수 김도곤)은 지난 20일 2019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한 결과 비봉면 민서울 아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실천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후 4~6개월 된 아기들과 가족 40여 명이 참가해 각각의 건강함을 뽐냈다.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혜전대학교 교수 등이 아기들의 신체발달, 행동발달, 건강상태, 모아 애착도를 종합한 결과 비봉면 민서울 아기가 최우수상, 청양읍 김도운 아기 우수상, 대치면 한평안 아기 장려상, 정산면 문송희 아기가 특등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3명은 9월 5일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충청남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청양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advertisement with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당진시 청년민회 참여할 청년 1000명 모집한다

청년에 의·청년을 위한 1000인의 청년민회

'당진형 란트슈게마인드'로 불리는 청년민회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진시가 22일부터 청년민회에 참여할 청년 1000명 모집을 시작하면서 청년민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19일 전국 최초로 청년 1000명이 참여해 개최하는 청년민회는 실질적인 제강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가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청년들의 의견이

바로 정책으로 추진되는 젊고 혁신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청년민회 참여자 1000명은 22일부터 모집을 통해 성별과 연령, 활동분야 등을 고려해 청년 표본층으로 선정되며, 행사의 계획과 진행은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민회 준비단이 직접 주관한다. 청년민회 주요 행사로는 청년참여예산제와 1000인 광장 토론회, 청년 당진 비전콘서트 등이 있다.

이중 청년 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 크라우드 펀딩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 시가 추진할 청년정책사업을 청년이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민회에 상정되면 민회에 참여한 청년 1000명이 개인별로 지급받은 가상화폐 20만 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시의 내년도 청년정책사업 예산 20억 원의 우선 사업은 물론 사업까지 민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계룡시 경찰서 유치활동 전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열려... 계룡경찰서 유치위한 당위성·공감대 전파



논산시 2020 시책구상 보고회 열려

농기센터, 대응방안 모색·지역농업 활성화 등 논의마련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020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논산농업의 대응방안 모색과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 융복합 산업화 촉진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농업인학습단체장과 24개 품목농업인연구회장 등 각 농업분야를 대표하는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농업인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기존 시책의 문제점과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20여 건의 신규 시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었으며, 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농업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고품질 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농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탄탄한 농업육성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폭염 속 민생행보 박차 박정현 부여군수의 민생현장 소통 행보가 여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군수는 지난 20일 임천면 성동목장과 세도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 남면 삼용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장애인 복지시설 구강 관리 서비스

서천군 보건소, 구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천군 보건소(소장 김재연)는 거동과 이동이 불편해 치과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찾아가는 구강병 예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비교해 자가 구강위생 관리가 어려워 구강 건강이 불량함에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료 접근성이 낮아 구강질환 유병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소는 치과 의사 2명과 치과위생사 3명으로 구강진료팀을 구성해 치과 이동 장비를 활용, 적극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장항읍 성인복지원을 시작으로 비인면 성도원과 종천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개인별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자 스케일링, 불소바니쉬 도포, 구강 위생용품 지원 및 개인별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한다.

이춘복 보건소 진료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며 대상자들의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경찰서 신설 유치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룡경찰서 유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추진방향 등이 심층 논의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계룡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치안 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경찰서 신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유치 활동에 온 힘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우선 각종 행사장, 군문화축제장 등 인구 밀집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 서명운동, 홍보물 배부, SNS 홍보 등을 통해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전폭적

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전방위적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구 의원인 김종민 의원을 방문하여 지역의 여론인 계룡경찰서가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는 전국 자치시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지역으로 시민들이 치안 불안과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룡경찰서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개청 이후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세무서 계룡민원실(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시사 계룡출장소(2014년), 계룡소방서(2017년)를 유치한 바 있다.

부여군 도로 지반침하 대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개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도로 함몰현상 및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부여군은 이미 지난 2016년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 용역을 통해

수관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본 사업 시행으로 하수 유출방지로 인한 수질환경 개선과 도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추구 및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수관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본 사업 시행으로 하수 유출방지로 인한 수질환경 개선과 도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추구 및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천안시 위원회 여성참여율 평균 40% 초과 달성

올해 각종위원회의여성비율평균 40.9% 기록·매년 여성위원 증가

천안시 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평균이 4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각종 소관 위원회 106곳의 여성위원 비율 평균이 40.9%(6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7.4%였으며, 2017년 말에는 29.4%, 2016년 말에는 24.8%로 매년 높아져 3년 만에 16.1%포인트

가 상승했다.

전체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를 초과한 위원회는 69곳이며, 전체 위원 106명 중 393명이 여성으로 총인원 여성비율은 3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이번 성과가 양성 평등한 시정 기반 구축 및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가 준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현재의 여성참여율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해 여성참여가 미진했던 도로, 교통, 건축,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양성평등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서천사랑상품권 한가위 특별 할인 10억 원 조기 판매 완료

군민들의 관심 증가로 지난 5월 특별 할인보다 빠른 시기에 종료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서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

기간 만에 목표액 10억 원 판매를 달성해 지난 5월 가정의 달 특별 할인에 이어 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다.

판매한 서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가게 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얼어붙은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편리한 상품권 사용을 위해 서천군은 관내 전역에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1,700여 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천군 노희량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편의유출방지를 위해 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강경근대문화역사거리 가을여행지로 '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9 '취향따라 떠나는 특별한 가을여행 주간'에 논산시 강경근대문화마을이 선정됐다. 한 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을 슬로건으로 국내 곳곳의 다양하고 색다른 여행지를 소개한다.

김태영 장소 선정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을여행지 20곳 중 논산의 강경근대문화마을이 뽑혔으며, △구 한일은행강경지점, 구 노동조합, 연수당건재한약방(불거리) △강경저택전시장과 체험 학습실, 선사인랜드 촬영세트장, 돈암서원(놀거리)이 소개됐다. 그 매력에 무엇인지 알아보자.

100여 년 전, 평양장, 대구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로 손꼽혔던 강경은 오래전부터 무역과 사업이 번성한 곳으로, 골목 곳곳에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예스러운 근대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강경은 한국의 기독교 성지를 둘러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한국 침례교회의 최초 예배지인 강경침례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양식의 교회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강경 북옥거리교회, 1924년 건립된 신사참배 거부 선조기념비가 있는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강경성결교회)도 자리한다.

또한, 달 밝은 보름달 하늘나라 선녀들이 산마루에 내려와 경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맑은 강물에 목욕을 하며 놀았다는 전설을 가진 옥녀봉에 오르면 사랑이

가 될 것 없이 환해지며, 눈 앞에 수채화가 펼쳐진 느낌을 받는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강경옥녀봉과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2019 강경 문화재 야행(夜行)' 행사가 개막한다. '타임캡슐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근대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강경의 밤거리를 거닐며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200년 발효기술의 고품질을 자랑하는 강경저택 전국에서 제일 좋은 원료만 골라 발효된 감칠맛 나는 강경 맛갈젓은 그 맛만으로 최고의 인기다. 매년 10월에는 강경저택축제가 열리는데 전국에서 그 맛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관광객이 몰려들어 인기를 실감케 한다.

앞으로 강경에는 1930년대, 신문물이 가득했던 강경향 객주촌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으로 근대역사 문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가 될 것 없이 환해지며, 눈 앞에 수채화가 펼쳐진 느낌을 받는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강경옥녀봉과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2019 강경 문화재 야행(夜行)' 행사가 개막한다. '타임캡슐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근대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강경의 밤거리를 거닐며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200년 발효기술의 고품질을 자랑하는 강경저택 전국에서 제일 좋은 원료만 골라 발효된 감칠맛 나는 강경 맛갈젓은 그 맛만으로 최고의 인기다. 매년 10월에는 강경저택축제가 열리는데 전국에서 그 맛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관광객이 몰려들어 인기를 실감케 한다.

앞으로 강경에는 1930년대, 신문물이 가득했던 강경향 객주촌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으로 근대역사 문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통정

모유수유아선발대회

구분영 천안시장은 22일 오전 10시 두정동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열리는 두정지구 행복주택 준공식에 참석하고, 오후 1시 30분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에 참석.

체육대회

최홍묵 계룡시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6회 이·통·반장 체육대회에 참석.

최종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22일 오후 2시 보령해양경찰서 신청사에서 열리는 청사 준공식에 참석, 오후 4시 서천군청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해양생태 100리길 조성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

보고회

박정현 부여군수는 22일 오전 9시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착수 보고회에 참석.

계룡시 막바지 폭염 예방 캠페인 전개

계룡시는 20일 오후 업무사거리 일대에서 자율방재단원 30여명과 함께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며 폭염예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폭염의 장기화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얼음물과 물통시 등 폭염 홍보 물품과 폭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며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에 대해 홍보했다.

이어 업무사 도로1리, 업무사 1·4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얼음물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알렸다.

구지영 부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가급적 야외활동과 운동을 삼가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해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서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나눔봉사모집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승)은 오는 24과 31일 '2019 청소년 나눔천사'를 천성중학교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린 '청소년 나눔천사'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나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아체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의 한 끼 비용을 기부하면서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제고하고, 생명존중 및 나눔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함양해 볼 수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삼각건대 등 배이스활동을 통한 기초안전교육에도 참석하게 된다.

행사는 24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31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봉사시간 7시간이 지급된다.

청소년 나눔천사에 지원하고 싶은 청소년은 e-청소년(www.youth.go.kr) 또는 1365(www.1365.go.kr)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팀(041-566-0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통정

공주시민대학개강식



김정섭 공주시장은 22일 오후 4시 고마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공주시민대학 개강식에 참석한다.

청사 준공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22일 오후 2시 보령해양경찰서 신청사에서 열리는 청사 준공식,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보령사랑 상품권 업무 협약식 참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맹정호 서산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5회 한국새농민총연합회 한마음 진전대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두리사랑보호작업장), 오후 4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2회 모유수유아선발대회에 참석.

초등학교 인성과정 졸업식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2일 오후 3시 서울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리는 '요리'는 김이여' 출판기념회 및 초등학교 인성과정 졸업식에 참석한다.

2019 충남여성자치대학 개강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교양 증진을 위한 '2019 충남여성자치대학'을 4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충남여성자치대학은 충남여성들의 지식 수준 향상과 취미 교양 프로그램으로 매년 공주를 포함해 보령과 아산 계룡 등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운영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주에서는 지난 20일 최미애 강사의 '건강패러다임의 변화와 소확행'이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22일 정동수 강사의 '추억 찾아 떠나는 광고이야기' △27일 곽영길 강사의 '생활속 범죄에 대한 예방' △29일 한영석 강사의 '소통으로 힐링하다' 등 총 4차례에 걸쳐 공주여성회관에서 진행된다.

충남여성자치대학은 공주시 여성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교육 담당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부한 여성가족과장은 "충남여성자치대학 수강을 통해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맹정호 시장 중국 외자 유치 '온힘'

중국 선양에서 부석 간월도 관광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펼쳐



지난 19일 선전에서 중국 CGNPC社와 1억불 외자유치 MOC를 체결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이번에는간월도 관광지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에 나섰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간월도 관광지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진희 기업행정팀장은 "충남 서산, 간월도가 좋다!" 라는 주제로 간월도의 지정학적 장점과 주변 개발여건을 설명하며 투자기회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 열린 어린이집 재지정 및 신규 신청공모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올해 18개소 대상 확대

보령시는 개방성이 높은 열린 어린이집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어린이집 재지정 및 신규 신청 대상을 공모한다.

의 일환으로 시설 개방 및 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어린이집 접근권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비율이 50%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준에 따라 평가 후 10월 말까지 최종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 있다.

이번 열린 어린이집 재지정은 지난 2018년 지정 이후 1년이 경과하여 기존에 지정된 12개소와 신규 6개소 등 18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일에 선정기준 및 운영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가점, 지도점검 제외, 보조교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2018년 열린 어린이집 선정 이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어린이집의 관심을 보여 기존 12개소에서 18개소로 선정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설 개방, 부모참여 확대된 열린 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 만들어 가는 양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어린이집 공간개방성, 부모 개별상담 및 부모교육·만족도조사·어린이집 참관 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후 10월 말까지 최종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 있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2018년 열린 어린이집 선정 이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어린이집의 관심을 보여 기존 12개소에서 18개소로 선정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설 개방, 부모참여 확대된 열린 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 만들어 가는 양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금산군협의회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도배·장판 교체

새마을지도자금산군협의회(회장 박경영)는 20일 새마을운동의 정책과제 중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군북면 내부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1가구에 추석맞이 도배·장판 교체 활동을 실시했다.

김근섭 금산군새마을회장은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수리하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줘서 고맙다며, 쾌적해진 집에서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한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고 사업취지를 밝혔다.

이 날은 군북면 새마을지도자 6명이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금산=주연기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원공무원 및 컨택센터 상담원에 심리상담지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각종 민원 및 감정노동에 지친 민원공무원과 컨택센터 상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컨택센터 내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는 민원공무원과 컨택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1:1 맞춤형 심리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사전에 상담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직원들의 심리재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가가 배치돼 상담을 실시한다.

김정섭 시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민원응대와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도움 방법이 없었다"며,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심적 고통을 겪는 직원들의 마음이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통해 해소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응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마을 역량강화 교육 운영

서산시, 6개 읍·면 8개 마을 대상 12월까지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6개 읍·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을역량 진단과 함께 지역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식 지역개발사업이 되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9일 대산읍 오지2리를 시작으로 대산읍 기은2리, 인지면 모월2리, 부석면 봉락2리, 팔봉면 대항2리, 지곡면 화천3리, 무장4리, 운산면 용현2리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마을 자원조사, 마을리더 및 공동체 활성화, 마을사업의 문제점 분석, 주민 갈등관리 등에 대해 공동학습과 토론에 참여하고, 주민참여 우수사례 마을을 탐방한다.

또한 마을별 교육 마지막 과정에서는 교육기간 중 마을역량 진단과 자원조사를 통해 살고 있는 마을의 특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직접 만들고 발표하는 마을공동체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은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인적 구성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마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마을만들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교육, 중간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찾아기는 안경수리 자원봉사 공주시 시민들 큰 호응 얻어

공주시(시장 김정섭)의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인 '안경수리 자원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공주시자원봉사센터 및 1001안경 신관점과 함께 '안경수리 자원봉사' 활동을 올해 말까지 펼칠 예정으로, 지난 20일 첫 방문지로 탄천면 화정1리 경로당을 찾아 마을 어르신 20여 명에게 안경수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평소 안경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경 세척부터 수리, 착용 방법, 보관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각 읍면·동과 학교에 공문 협조를 요청해 수요처 현황을 파악한 뒤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안경관리는 물론 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주병하 복지정책과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재능기부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상원(윤선우 분)은 보리를 찾기 위해 미파도로 떠난다. 급주(나해미 분)는 제사를 돕겠다고 석호(김산호 분)의 집에 간다.

한편 준호(김사권 분)는 여름아(송민재 분)가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는데...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30분)

평화로운 일상, 계속될 수 있을까?! 오회장의 오해를 풀어낸 동주, 송이를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한번 더 전하고 송이에게 확신을 심어

주는데... 한편, 돌만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은석과 제니. 모두가 반대하는 사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저스티스 (KBS 오후 10시00분)



서동석(이호재)이 남원식당에서 성상납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아(나나)는 충격에 휩싸이고, 이를 지켜보던 대경(최진핵)은 송희장(손현주)을 찾아가 서동석에게 맺을 놓은 이유를 따져 묻는다. 한편, 영미(지혜원)는 조현우(이강욱)에게 함께 이 곳을 빠져나가자고 유혹하고, 마음이 흔들린 조현우는 탁수호(박성흔)를 속이고 영미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는데...

케이블 영화

▲엑스맨:아포칼립스 (OCN 오후 7시00분)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아포칼립스 고대부터 신으로 숭배 받아왔던 최초의 돌연변이 아포칼립스가 수천 년간 무덤에 잠들어 있다가 1983년 이집트에서 깨어난다. 타락한 문명에 분노한 아포칼립스는 절망에 잠긴 매그니토를 비롯하여, 스톰, 사일릭, 아크엔젤에게 보다 강력한 힘을 주며 자신의 수하 '포 호스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여 강한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한편, 프로페서 X는 어린 돌연변이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해 인간과의 평화로운 공존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 아직은 스스로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진 그레이를 통해 아포칼립스가 초래한 인류의 멸망을 예견하게 된 프로페서 X는 돌연변이들로 이뤄진 엑스맨을 결성한다.

아포칼립스를 막기 위해 사상 최대의 전쟁이 나게 된 그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적과 싸워야만 하는데... 인류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

▲스파이게임 (채널CGV 오후 10시30분)

너를 구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오직 그녀를 다시 찾는 겁니다!

매는 1991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CIA의 베테랑 요원 나탄 뤼어(Nathan Muir, 로버트 레드포드 분)는 자신의 부하였던 젊은 요원 톰 비숍(Tom Bishop, 브래드 피트 분)이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비숍은 24시간 후 사형에 처해질 예정이지만 CIA 수뇌부는 국제관계 악화를 우려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뤼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실력을 동원하여 비숍을 구출하기로 결심한다.

베트남 전선에서 저격수로 활약했던 비숍을 스카우트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던 뤼어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과거가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함께 사신을 넘나들며 쌓은 우정과 베를린에서 베이루트까지 중환자진했던 위험한 스파이 활동, 그들의 우정을 흔들리게 만든 한 여인(Elizabeth Hadey, 캐서린 맥코맥 분)까지.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 OCN
7:20 미스터가게
8:30 상의원
11:00 퍼시픽스라본개도독
13:10 퍼시픽스라본개도독
15:00 WATCHER(왓처)
17:40 미스터가게
19:00 엑스맨:아포칼립스
21:50 미스터가게

- MBC 스포츠플러스
11:00 2014 소치동계올림픽 대한민국의 하이라이트
12:00 2018 NFL 플레이오프 진출팀 하이라이트
12:30 2018 KBO 리그 TOP10
14: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하이라이트
15:30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특집 꿈이 이루어지다

-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물의 시사시황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송
10:00 MBC MUSCHIT SONGS
11:00 주간아이돌
12:00 Show Champion
13:30 대한외국인
15:10 언더나인틴
16:30 나혼자산다
18:10 복면가왕

- Mnet
7: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9:00 고등래퍼2
10:30 썸바디스페셜
12:00 나가 일년내가야
13:30 MPD Music Talk(SNS/매신자)
14:30 인체해부 체리블랫
15:30 썸바디
17:10 Daily Music Talk(SMS)
18:00 M COUNTDOWN
19: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21:00 Live on M(SMS)
22:00 인체해부 체리블랫
23:00 나가 일년내가야

- 온스타일
7:40 갯잇뷰티 2018
9:40 원나잇 푸드트림 스페셜
10:50 밥블레스유
11:50 밥블레스유
12:50 원나잇 푸드트림 스페셜
14:30 갯잇뷰티 2018
15:40 갯잇뷰티 2018
16:50 밥블레스유
17:50 원나잇 푸드트림 스페셜
19:30 원나잇 푸드트림 스페셜
21:20 갯잇뷰티 2018
22:30 밥블레스유
23:20 대탈출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830
10:00 중시리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중시리인 13
15:40 부자권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황
19:00 보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의주식 사구팔구
21:00 대박 천국

- 애니맥스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타일메카드 W 시즌2
9:00 꼬마버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엘미리언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녕(괴물)가발
15:00 아들은 너무 이상해
16:00 바이오하자드 버스터
17:00 포켓몬스터 섀몽문
18:00 베이비레이드 버스트

- JET 지능방송
6:00 유희왕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캐처원더pa2
9:00 파워구조대 시즌2
10:00 변신자동차 도트 12기
11:00 출동! 슈퍼왕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모더뮤지컬
13:00 치령차링 시크리 쥬쥬11기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영웅전사
16:00 농지마정신출
17:00 메슬론 도트4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program schedules for each channel.

무더위 안녕 '2019 갑천수상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오는 31일 갑천수상스포츠체합장 일원에서 개최



대전광역시 체육회(회장 하태정)가 올해를 막아내 무더위를 날릴 '2019 갑천수상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는 31일 갑천수상스포츠체합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대전광역시와 (주)세계건설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대전광역시체육회와 이쿠아마리나 코리아가 주관하는 '2019 대전갑천전국패들보드 챔피언대회'가 열려 일정을 끈다. 대회는 장년부 남녀, 일반부 남녀, 청소년부 남녀, 대학부 혼성 4개 부문 7경기로 구성됐다. 부문별 시상금은 최대 100만원이다. '2019 대전갑천 전국패들보드 챔피언대회' 참가 선수에게는 기념타월, 메달, 완주기록증 등 전원 기념품이 증정된다. 또한 선예약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패들보드 요가 및 투어링 체험이 제공된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체육회 홈페이지(https://ds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갑천수변공원에서 이날 대회 이외에도 각종 수상기구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또한 수상스포츠 사생대회, 패션타투, 캐리커처, 파타체 쿠키만들기 등 시민참여 체험프로그램과 스포츠용품 베품시장, 플라마켓, 푸드트럭 등이 부대행사로 운영되어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대안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었다. 대전광역시체육회 박일순 사무처장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안전 수상스포츠 체험과 대회를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2019년 마지막 무더위를 갑천수상스포츠체합장에서 날려버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거자

아산시, 문화소의 아동·청소년 '문화공원 무료관람'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관내 문화소의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기획공연객의 5%를 문화소의예측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8월 16일부터 뮤지컬 'THIS IS IT'을 시작으로 10월 가족뮤지컬 '안녕 도깨비' 등 우수 기획공연을 대상으로 문화소의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무료관람 지원대상은 아산시 여성가족과를 통해 선정하며 관내 많은 문화소의 아동·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소의 아동·청소년들이 무료공연관람을 통해 문화에 대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24일 제5회 칠갑산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청양군과 청양군배드민턴협회 공동 주최



청양군(군수 김동관)이 오는 24일과 25일 청양군민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제5회 칠갑산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청양군과 청양군배드민턴협회(회장 조두형)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2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이며 급수별, 연령별 총 92종류로 치러지며, 예선은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된다. 출전 급수는 선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향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녀복식에도 동일 급수로 출전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보호자 동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도 20대대 출전 가능하다. 5회째를 맞은 칠갑산배 전국배드민턴대회는 전국 어디서든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기존 대회 참가자들의 평이 좋아 매년 출전팀이 증가하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각종 체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스포츠의 메카답게 청양을 찾는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대회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청양=리량주기자

강경상업고, 특성화고 사장되기 창업대회 우수학교 선정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 2년 연속 우수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 기호엽이 지난 20일 제 16회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Be The

CEO) 최종심사결과 대상 3명, 금상 1명을 배출하며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학교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은 산소호흡기의 산소 공급 기능과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기능을 결합한 '그린에어 마스크' (3학년 유정재), 기존 헤어드라이어의 기능에 탈부착식 청소기 헤드와 무선 충전의 기능을 추가한 '탈티 드라이 클리너' (2학년 유혜빈), 귀 이개, 면도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용도 미용품인 '디바이스 온' (2학년 최기철)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본산=김성구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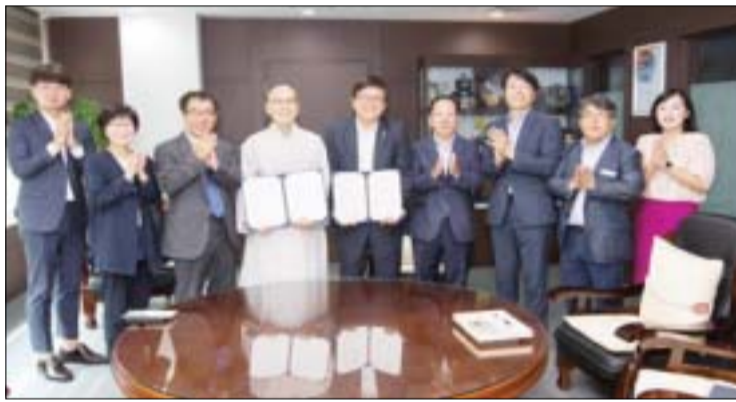
서천교육지원청, 학교 및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은 20일 오전 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학교 및 학원 통학차량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통학차량 안전행동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교육청, 건전한 노사문화구축 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0일(화)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 상생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1기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식 건강사이버대학교(이원목 총장)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8월 17일 '1기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충실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졌다.



"세종시는 교실 인력이 민주시민교육 현장"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1일 세종시교육청 3층 교육감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훈청-천주교대전교구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업무협약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과 천주교대전교구(주교 김중수)는 21일 대전교구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양군 4-H, 대치면 탄정리에서 농촌봉사 청양군4-H연합회(회장 복선환)는 지난 20일 고향화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돕기 위해 대치면 탄정리를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중소중앙회-중소음부즈만, 규제 발굴·개선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음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예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규제, 경영 애로사항발굴 및 해결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충남교육청·홍성군·홍성지역 대학들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업무 협약 가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구축을 위해 21일 홍성교육지원청에서 홍성군,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와 함께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업무 협약은 지난 6월 금산군-중부대학교와 협약의 시작으로 공주, 예산에 이어 홍성에서 네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김석환 홍성군수, 청운대학교 이우



종 총장, 혜전대학교 이세진 총장,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최장운 학장과 이종화 도의원, 조승만 도의원, 이병국 군의원, 지역 고등학교 교장들이 참석해 협약이 갖는 의미를 더했다.

홍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약속했고, 3

개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해 홍성지역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웠던 심화과목이나 실험·실습 과목의 개설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정환기자

서산시 운산면, 찾아가는 영화상영 '큰호응'



서산시 운산면(김동찬면장)은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사진)를 상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용현1리에서 마을 경로당에서 3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어르신 상담센터(센터장 허영일)의 주관으로 영화 '수상한 그녀'를 관람했다.

이날 상영된, 수상한 그녀는 70대 노인이 우연히 젊어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린 가족영화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영화를 관람한 한 어르신은 "더운 여름에 시원한 경로당에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어 무더위 속에서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전병용 전 대전시장에 인체육회 사무처장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받아



전병용<사진 오른쪽> 전 대전시장에 인체육회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자치분권위는 대통령소속 자문

위원회로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사진은 김순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받는 모습)

이정복기자

대전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실태와 성과

현장의 의견 청취하는 간담회 가져



대전광역시(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주관으로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정책과 담당 주무관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 주민센터, 경노당,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협회 회장들과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운영 실태와 성과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전광역시는 안전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주었고, 현장에서 교육간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안전교육을 개선하는데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름철을 맞아 여가활동안전에서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 자전거 탑승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안전위험요소의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였다.

또한 새한국안전문화관리협회(회장 이갑상)는 대전광역시 주민센터의 통장들의 안전영양을 육성하여 중장년층 안전리더로 세우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강사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시민의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안전교육을 계획하는 시 안전정책과 담당 주무관들에게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보조재를 안전교육 현장에 지원해 주어 안전교육에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에 시민을 위한 안전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 성과분석을 준비하여 대전광역시 전국에서 제일 모범된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김성구기자



당진화력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

동서발전의 모든 사업소가 릴레이로 시행하는 헌혈행사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는 지난 19일 2019년도 상반기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는 동서발전의 모든 사업소가 릴레이로 시행하는 헌혈 행사로서, 올해로 16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동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는 대전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이 당진화력 본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진화력본부 전 직원과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금화PSC 등 발전소내에 상

주하는 협력사 직원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직원들이 기증한 소중한 헌혈증은 혈액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적십자사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헌혈에 참여해준 당진화력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증한 헌혈증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유용하게 쓰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후원물품 전달행사

제35회 저소득층 위한 후원물품 지원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홍원유)는 지난 20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제35회 지역내 저소득층 지원 위한 후원물품 전달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삼아인터내셔널(대표 채홍용), 태평양에어컨트볼공업(주)대표 카키시타카즈야, 온주콤탕(대표 김병관), 남신제관(주)대표 홍원유, ㈜천지건설(대표 조홍준, 이장세), ㈜원린문디자인(대표 문정선), ㈜영광 YKMC(대표 장관섭)등 아산시기업인협의회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제35회 후원물품은 과자, 라면, 곰탕, 햇반(즉석밥), 두유, 휴지, 시발면 등으로 준비됐으며, 염치읍·신장면·운양1동 행복마을 추진단, 아산시기초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인 협의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모아 매월 후원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돼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바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광주기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자살 위기 가정 대상 긴급지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가 자살 위기 가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살 위험을 완화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은 자살예방, 도보조금 등으로 자살예방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자살 위기 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적십자 봉사원 등이 자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친 후 생계, 주거, 의료, 교육영역을 지원한다.

긴급지원 후에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십자사의 결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원이 매달 생활물품을 전달하는 등 각종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적십자 자살예방 긴급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원하는 경우 적십자 충남지사 구호복지팀(☎041-640-48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충남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원 송공패 전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오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교육공무원 10명에게 송공패를 전달했다.

이들 교육공무원들은 맛있게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거나 학교행정업무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다 8월말에 퇴직하게 됐다.

기고

日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수출입 대응 방안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세분석실장

황여기를 면제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기업별로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 또는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검색해 보거나 국내 '대외무역법' 이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별표 3' 등을 검색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일본의 경산성이나 국내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관정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향후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모든 기업이 비민감 품목에 대해 사용할 가능한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허가제도에 는 전략물자를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본 내 '자율준수 기업'이 사용가능한 '특별일반 포괄허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으로서 기존의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estrade.go.kr, japan.kosti.or.kr) 등에서 일본내 자율준수기업 명단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략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인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심사과정에서 평균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물품 납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 향후 이를 감안해 미리 주문을 해야 하고 또한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둘 필요도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수출허가가 거부될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약 1300개 내외의 규모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들 중에는 하나의 기업으로 공급선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기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권유함으로써 기존의 간소화된 절차, 즉 유효기간이 3년인 포괄허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대상 품목이 비전략물자일 경우에는 동 품목이 수입된 이후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규정에 의하면,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제조 전용 가능성에 대해 알거나,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것을 일본 정부로부터 통지 받은 경우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캐치를 허가'라고 부르는

데 현재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물품의 특성상 대량 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40개 품목을 표로 정리해 중점 감시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 종류에는 수치제어 공작기계, 탄소섬유, 티타늄 합금 등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최종용도 및 사용자 등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이와 같은 캐치를 허가하는 40개 품목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농식품, 목재, 직물류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특별히 40개 품목을 지정해 둔 취지는 물품의 특성상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자가 관심을 갖고 최종용도 및 사용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수출통제제도는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제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동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안전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사설

정부가 외면하면 지방대는 없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절, 시장수요에 대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와 관련,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줄여 대학 스스로가 정원을 줄이는 등의 지구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할때 5개 권역 기준으로 나눠 우선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단위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50%만 지방권역에 우선 배정했었다. 이 경우 수도권의 하위 대학보다 지역 대학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했고 재정 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했었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받은 지방대·전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강제적 정원감축은 아니라도 평가기

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축소는 결국 지구책을 마련 못한 대학들의 퇴출이란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진단 점에서 문제는 상존한다. 특히 지방대 위기감은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심각하다.

전국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해 강제로 입학정원을 줄이진 않는 다지만 지방에 위치하고 있던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란 것이다. 대학이란 특수성을 외면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퇴출 여부가 결정되도록 방치한다면 그동안 어려웠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 진다는 점 역시 지방대 입장에서 역올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정원감축을 위한 대학의 강제평가가 없어지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지구노력의 기회가 주어졌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경쟁에 지방대를 버려뒀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책 없는 부실대학의 퇴출은 맞지만 모두의 일방적 고사를 조래할 수도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이 끊기면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들에게 '일어서 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홍포화되는 범죄로 시민은 불안하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회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흉악 범죄들이다. 게다가 민생 침해 사범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생활이다. 무전 취식자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상인을 괴롭히는가 하면 전국의 전통시장과 축제 현장을 돌며 행인들의 지갑과 현금을 훔치는 절도범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모텔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잔혹성을 띤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범행수법의 잔혹성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일명 '한강 뭉통 신인 사건'이 그것이다. 피의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살인 후 시신을 손괴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이 없는 범행 동기가. 피의자는 피해자가 반말을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살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일명 '안양 노래방 살인사건'의 경우도 도무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사건과 유사

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빈발하는 범죄에 온전히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곧 무법천지다. 현행 경찰법은 제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를 나열하고 있다. 국가경찰의 임무는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그것이다.

갑수류 범죄양상이 홍포화되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에 사회가 어수선하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 기강이 바로잡혀야 하겠다. 범죄 수법의 잔혹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성교육 부재에서 비롯되는 결과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남도, 中지린성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충남도가 중국 동북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지린성과의 관계를 우호교류에서 자매결연으로 격상했다.

외자유지와 지방외교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양승조 지사는 21일 지린성 창춘 상그릴라호텔에서 정진하이 성장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 중국 내 자매결연 체결 지역은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랴오닝성과 함께 7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 협정은 도와 지린성 간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우호 협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 우호교류협정 체결 14년 만에 맺었다.

협정에 따라 도와 지린성은 평등협상,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거해 경제·무역·농업·과학기술·환경보호·문화·교육·체육·위생·인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

구한다. 또 양 도·성의 주요 인사와 유관 부서는 상시적인 연락 관계를 유지,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해 협가 협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자매결연 협정 체결식에서 양 지사는 "충남도와 지린성의 관계는 자매결연이라는 더욱 돈독하고 우의 깊은 관계로 격상했다"라며 "양 도·성의 발전은 물론, 영속적인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린성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지투개발개방선도지구 건설과 훈춘변경경제합작구 프로젝트 등 경제발전 전략을 훌륭히 전개하고 있다"며 "지린성의 도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또 "지린성의 동반자인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 물류, 문화, 경제의 중심부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자매결연협정 체결로 더 가까운 벗이

된 양 도·성이 서로의 감정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적이고 내실 있게 교류를 확대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자매결연협정 체결 전후 양 지사는 정진하이 성장, 바이차오루 당서기를 각각 접견하고,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따른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하이 성장, 바이차오루 당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양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며 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유교포럼, 수소포럼, 2020계통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도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중국 동북지역 중부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북한, 러시아와 인접한 지린성은 18만 7400km²의 면적에 인구는 2705만 명, 조선족 인구는 10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지린성은 특히 최근 두만강 지역 국제협력 확대에 따라 중국 동북경제권의 중심으로도 도약하고 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농산물 가공, 의약 등이 있으며, 이중 완성차 생산량은 2017년 기준 289만 7000대에 달한다.

도와는 2005년 9월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 경제, 관광, 농업 분야에서 49회에 걸쳐 상호 방문 활동을 펼쳐왔다.

지린성에서의 일정에 앞서 양 지사는 천안 KMF가 라오닝성에 설립한 SJMF 방문, 생산시설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05년 문을 연 SJMF는 자동차 연료펌프 필터와 정밀 플라스틱 부품 생산·공급 업체로, 2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연매출 1억 위안을 기록 중이다.

SJMF 방문에 이어서는 국제비즈니스센터와 혁신창업성, 신홍산업구, 첨단제조구 등을 갖춘 경제집적구인 선푸지구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총면적 171km²에 달하는 선푸지구는 △개방적 플랫폼 구축 △본부 기지 건설 △디지털 경제발전 △스마트 산업 확대 등을 4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 지사는 선푸지구에 이어 라오닝성 선양 황관자르호텔로 이동, 무역 상담회에 참여 중인 도내 9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e Too' (미투) toothpaste. Features a man's face, a tube of toothpaste, and a bottle of mouthwash. Text includes '속취해소' (odor relief), '말이 왜 필요합니까?' (why do I need mouthwash?), and '소비자 상담실 1899-1677'.

韓·日 킥복싱대회



鬪魂會

2019.08.24

START 11:00 [토요일] 개회식 14:00

주최·주관: 鬪魂會 장소: 서대전시민공원 야외음악당특설링 일시: 2019년 8월 24일(토) 14시

협찬: 대전투데이 한국정신건강신문 만년자동나라 닥터케어 그로리아가구대전점
 주트코리아 SE300 에스이이엔지 JW 장원펌프카 KSCIA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부산업·중부물탈펌프카